

어느 집보다도 교수사회에 대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지극한 청렴도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있음은 자타가 수긍하는 사실이다. 예로부터 선비에게는 청빈이 지극한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전래의 가치가 이제 땅에 떨어져 썩어나 형국이다. 지난 7월의 S대 공대 교수의 구속이 이어 금년에는 3개 대학의 교수 4명이 연구비를 목적 외의 방법으로 내용으로 집행하여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사례를 접하면 아연해 질 수밖에 없다.



불자 세상보기

최순열
동국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교수사회의 '도덕불감'

25%가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교수사회의 사회적 책임성의 부재를 점검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일찍이 인간의 탐욕과 야심의 무명을 벗어나서 진정한 인간의 존귀함을 구현해야 한다는 불도의 가르침을 새삼 절실하게 들이켜 새겨야 하리라.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재화에 눈이 멀어 그동안 교수로서 사회적 신뢰와 신뢰와 책무를 송두리째 내던지는 인간의 탐·진·치의 단면을 보는 것으로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누구든 완미한 지경의 무소유와 보시의 실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고귀한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교수사회가 그나마 그러한 고결한 삶의 진면목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학과 교수사회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는 청정도랑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이타행을 베풀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의 이익이나 편의를 가로막거나 빼앗기는 말아야 하는데, 제자들이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잘라 착박하는 일이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저

질러지는 과오 가운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죄업과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죄업이 있다. 이번 몇몇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은 그 둘의 죄업을 동시에 저지른 것이다. 한낱 티끌만한 탐욕을 자제하지 못한 흐린 마음으로 인해 그 동안 쌓아온 교수로서의 학문적 성과와 신망을 한꺼번에 놓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두루 자기경계의 절실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내세워, 향후에 교수들에게 지원될 연구비의 양과 질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연구비 산정이나 집행 절차가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는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며, 연구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도 있어야 하겠다.

물론 그 무엇보다도 진정한 인간성애의 눈동과 탐심의 덧없음에 대한 깨우침으로 교수사회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교수사회에 알게 모르게 스며든 도덕적 불감증과 '이재 밝힘증'이라는 사자신증을 준엄한 회오의 자제로 스스로 속아내는 자기성찰의 옹양정진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그러하여 교수라는 직분이 진정하게 우리 사회의 선지식의 참된 노릇을 수행하는 울골은 위상을 회복하도록 하자.

불자의 눈 는설위행 기명사설

돌아본다는 것은 언제나 앞을 내다보는 일과 맞물려 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지향점을 지기고 앞을 내다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돌아보는 일도 하지 않는다. 이제 올해도 저물어가는 이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 다가올 한 해를 맞는 우리의 지향점을 점검하여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올바른 지향이 없다면 돌아보는 일 또한 할 수 없다. 돌아본다는 것이 어찌 단순한 회상이겠는가? 우리가 갈 길이 이리러한데, 그 긴 노정 가운데 여기는 좀 해맸구나, 여기는 지나치게 우회했구나, 여기는 거꾸로 방향을 잡았구나, 하는 반성이 바로 돌아봄의 의미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불교계는 아직도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기에 오히려 지나치게 주변의 소리에 휘둘리고, 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아픈 반성이 있다.

돌아봄이 충실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확실한 방향설정의 부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돌아봄이 있어야 할

돌아봄과 내다봄 그리고 희망

뜻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와 방향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긴 지향 점과 한 해라는 기간에 성취할 구체적인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돌아봄 또한 추상적, 관념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한 차원 더 구체적인 곳으로 내려간다면, 앞에 이야기한 지향점과 목표를 기준으로 한 반성 이전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충실한 수집과 정리가 가장 기본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하고 아픈 사건이라 하여 감추지 않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여 과장하지 않는 엄정한 기록과 정리, 그것이 있어야만 올바른 돌아봄이 가능하다.

우리 불교계는 아직도 어정쩡한 관용의 정신과 파벌중심의 이합집산이 계속되어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을 등한히 하고 있다. 당장의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엄한 기록보존은 필수적이다. 후세의 판정이 있을 것이기에 망동을 삼가게 하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으며, 긴 기간 축적된 정확한 자료가 말로 긴 지향점을 올바르게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을 해야 할 이 시점에 돌아봄의 바탕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지만, 그것 또한 올해를 돌아보는 하나의 눈일 수 있겠다.

심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나눔**

천장을 윈들 돛을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경을 많이 윈다 해도 돛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한 뜻이라도 들고 행하여 제도됨만 같지 못하다. 한 글귀를 알더라도 행하면 도를 얻는다. <법구비유경>

최근 보건복지부의 여론조사 결과 '최근 1년 사이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사람이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34%는 '전혀 저축할 돈이 없다'고 응답했다. 물질이 풍족하다고는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밥조차 먹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와 각 신문사, 방송사가 개설한 ARS 전화를 이용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하고 있다. 전화 한통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고 큰 금액도 아니어서 부담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할 마음은 있는데 선행 실천하지는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ARS 전화 한 통도 귀찮아서 미련 없이 없었나 다시 한 번 반성해볼 때다.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자비와 나눔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불자들의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조그만 관심, 조그만 자비, 또 조그만 실천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자비'가 좋고, '나눔'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요는 행(行), 실천이다. 호주머니 속에 있는 전돈은 우리 보다 '밥을 굶고 있는 이웃들'에게 더 필요하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아직 갈 곳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때 일수록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훈훈한 나눔의 정이다. ■김강진(해운대 부처)

열린마당 **각 종교의 '이혼'에 대한 견해**

결혼과 이혼. 각 종교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하루 세 쌍이 결혼하고, 하루 한 쌍이 헤어지는 '이혼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

12월 14일 서울 정동 세실극장 세미나실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천리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과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지도자 50여 명이 모여 '이혼'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최는 서울고등법원조정위원회(회장 장연영). 이날 세미나 내용을 발표자별로 요약·정리한다.

▲**법명 스님**(대한불교거사상연구회 공동 대표·장영 법성사 회주) - 결혼은 개인의 선택과 판단 문제다. 하지만 이것도 연기법에 의한 것이다.

가족이 붕괴되는 원인은 갈등에 있고 갈등은 신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불교의 핵심사상인 연기와 중도에서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부부의 인연도 이혼의 악연도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다는 연기법에 따른 것이다.

경전에서는 가족의 의미를 '식구들이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일할 때 같이 힘 모아 일하기 때문에 가족이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기법을 알고 가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노영환**(한국기독교개혁교단회장) - 창조주가 아담의 아내를 만들어 준 것이 결혼의 시작이며, 이혼은 창조주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에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성경을 이탈하는 행위다. 우리는 5월 셋째 주를 '부부의 주'로, 5월 20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 가정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종교계가 새 가정 운동을

펼쳐 이혼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안정수**(가톨릭, 경희대학교육대학원장) - 부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것이며, 인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고귀한 인연이기 때문에 이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얼마 전 바티칸에서 부부들 선의의 관계이자 평생 운명공동체로 규정된 바 있다. 부부의 선의 관계는 이타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부부간의 이타적 행위는 가정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원오**(원불교 화교교구장) - 부부는 선연(善緣)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부부가 되고 나면 다시 선연을 쌓아야 한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악연이 되는 것이다. 이 악연은 악순환된다.

▲**이재룡**(대종교 봉선) - 단군 할아버지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종교는 순리대로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따라서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욕구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나보다 주변과 상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이 많은 것은 결국 이해관계가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고운지**(천도교 여성중앙회장) - 천도교는 '사람이 하늘'이라는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보면 부부는 서로를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 우리는 부부를 천지(天地)로 본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해야만 천지가 조화될 수 있다. 천지가 조화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땅도 하늘도 제 욕심을 버려서는 안된다. 늘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

▲**조수현**(대한천리교 원로교동) - 천리교는 현실에 대한 순응, 순종, 교화를 중요시 여기며, 사심없는 정성으로 남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교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정성이라고 말한다. 정성이 통하면 다 이루어진다. 인내력과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결혼은 그런 약속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인간은 만물의 대표적 존재다. 인간은 생명과 평화 등 모든 가치를 함축한 창조물이다. 정리=한명우 기자

'연대' 민명 심민섭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 수록 내용

- 공상 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 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 이야기 성형수술 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검사님 연애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 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 ▶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 꿈 해몽 비법 ▶ 피로 보는 공합
- ▶ 달로 보는 공합 ▶ 시(時)로 보는 공합
- ▶ 날짜로 손(상성) 보는 법 ▶ 삼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동행 601175-52-016521

교도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정동(명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으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 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지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박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하면 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기를 확인하면 어떠한 사안을 알게됩니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